

공수처법 국회 통과...檢 '기소독점' 깨졌다

찬성 159·반대 14·기권 3명 가결...내년 7월 설치 마무리
대통령·국회의원·판사·검사·경찰 등 직무관련 수사 대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공수처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련기사 3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1야당이 자유한국당이 집단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공수처법안 수정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이에 앞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이 먼저 표결됐지만 부결됐다.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공수처 설치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으로서, 현재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 '제3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 상징성과 의의가 매우 크다는 평가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장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이 가운데 검찰·검사·판사에 대한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도 한다. 공수처장은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여당 2명, 야당 2명+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 회장) 7명 가운데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에서 같은 사건에 대한 중복 수사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시 해당 기관에 요청해 사건을 이첩받을 수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4월 29일 국회 사법개혁 특위에서 공수처법 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4+1 협의체는 이후 공수처 독립성과 검사의 자력요건,

다 수사기관과의 관계 등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 수정안을 의원 156명의 공동발의로 제출했다. 수정안에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수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명시적 조항이 담겼다. 특히,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를 두고 한국당은 권력 보위를 위한 '독소주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 7월까지 공수처 설치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 가결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법의 표결 방식이 정해지지 않자 국회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퇴장 이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의 모든 권력범죄 은폐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주구가 될 것"이라며 "위헌이 분명한 공수처법에 대해 즉각 헌법 소원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 설치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검찰 개혁의 또 다른 축인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도 내달 3일과 6일에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은 경찰의 1차 수사 재량권을 대폭 늘리고,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 권한을 줄여 검찰과 경찰을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설정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선 경우, 임시국회 회기를 짧게 정해서 회기 하나당 하나의 법안을 처리하는 '쪼개기식 임시국회' 전략을 구사해 내년 1월 10일까지는 법안 처리를 마무리 짓겠다는 구상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잘가라 2019년" 다사다난했던 기해년 한해가 저물고 있다. 2019년은 5·18진상규명 본격화, 한전공대 설립 확정, 광주도시철도 2호선 착공, 광주형일자리 착공 등 지역 숙원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지역발전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새해 경자년에는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등 현안사업들이 광주의 관문인 무진로를 달리는 차량의 궤적처럼 시원하게 해결돼 광주·전남이 상상발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2020년 첫 해돋이
무등산 7시 41분
일부 지역에는 눈

31일 광주·전남 일부 지역에는 눈이 내릴 전망이다.

30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해 상대적으로 따뜻한 해수면과의 온도차(해기차)에 의해 만들어진 구름대의 영향으로 31일 새벽부터 광주와 전남 일부지역에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광주와 영광, 함평, 담양, 장성 등의 예상 적설량은 1-5cm다.

새해 첫날 무등산에서는 오전 7시 41분 경자년(庚子年) 첫 해를 볼 수 있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일출 예상 시각에 따라 새해 첫날 새벽 4시부터 해맞이객 입장을 허용한다. 해맞이 당일 광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까지 내려가는 등 춥겠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새해 첫날 탐방로 입구에서 차 나누기 행사, 탐방객 안전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하며, 개인탐블러 소지자에 한해 수제차와 커피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현명 기자 young@kwangju.co.kr

'아파트 공사판 광주' 시민 '무실했다' ▶16면

굿모닝 여행-예술의 거리 미로센터 ▶18면



광주일보 선정 2019년 10대 뉴스 ▶19면

5174명 특별사면·감형·복권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이광재 전 강원 지사와 광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동당 위원장 등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 사범 등 5174명을 오는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했다. <관련기사 3면>

이 전 지사는 2011년 1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이광재·광노현·한상균 포함

음주운전·뺑소니·난폭운전 사범 제외

선고받아 지사직을 상실한 바 있으며, 광전 교육감은 2012년 9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돼 물러났다. 2015년 5월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전 전 위원장도

특별사면을 받았다. 사면된 선거 사범 267명은 2008년 제18대 총선과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처벌받은 이들로 박형상 전 서울 중구청장, 전완준 전 화순군수, 하성식 전 함안군수,

이철우·최양진 전 함양군수 등이 포함됐다.

선거 사범에 대한 대규모 특별사면은 2010년 이후 9년 만이다. 법무부는 동종 선거에서 두 차례 불이익을 받은 경우로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18·19대 대선과 19·20대 총선, 6·7회 지방선거 당시 사범은 제외됐다. 다른 사건으로 수배·재판 중이거나 벌금·추징금을 미납한 경우, 공권 관련 금품수수 전력이 있는 경우도 배제됐다. 반면, 한명숙 전 국무총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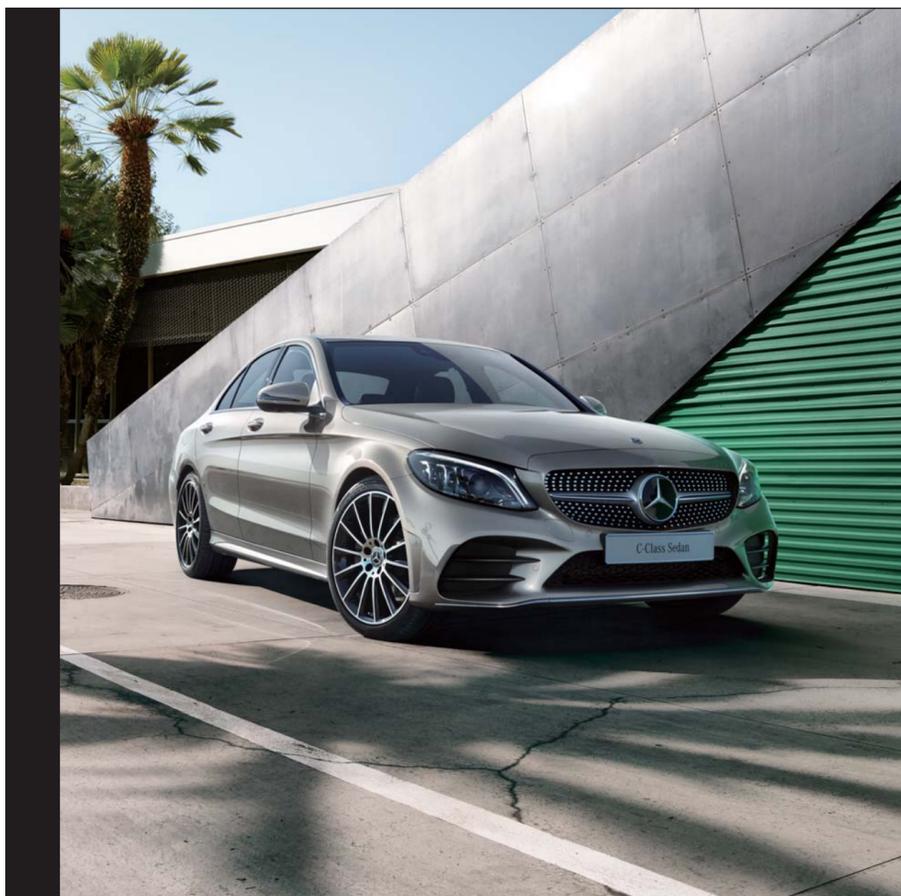
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1879명이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제한에서 해제됐다. 또 올해 3·1절 특별사면 이후 형이 확정된 '세월호 집회 사건' 등 이른바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가운데 18명을 선별해 추가로 사면·복권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2020 새해특집 1월 2일 발행
1월 1일자 신문 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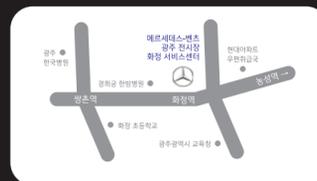
사랑과 감사의 65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9]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Never stop improving.

The New C-Class Sedan.

메르세데스-벤츠의 새로운 C-Class.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증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16(수완동)
소촌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동대로 603번길 20(소촌동)
수완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20(수완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C 220 d (배기량: 1,995cc, 공차 중량: 1,650kg, 자동9단), 복합연비: 14.4km/ℓ(도심연비: 13.2km/ℓ, 고속도로연비: 16.3km/ℓ),
등급: 2등급, 복합CO₂배출량: 131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상기 제품 이미지는 실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